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사티쉬쿠마르
목사

하나님이 제때에 응답해 주실까?

- 요한복음 11:6 -

- International Ministerial Council of Great Britain
- 마더테레사 상(Mother Teresa Award) 수상
- 현) 인도 갈보리템플 담임목사



내일의 강사 **임현수** 목사

· 현)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목사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윤지민이에요.
처음으로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울동하면서
찬양하는것도 즐겁고 기도할때 다리가 저리지만
기도시간도 좋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기도회 가는데
벌써 16번이나 갔어요. 아침에 일어날때 힘들지만
꼭 참고 남은 5번도 꼭 나갈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힘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윤지민
(성내2교구 쿤밍목장 강세영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대표로 한 분만 주일날 출판홍보부로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제3교육관 풍원빌딩 3층 출판홍보팀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1 자리 잡아주지
않기



2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3 음식을 반입
하지 않기



4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5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6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7 대중교통
이용하기

Daniel
Prayer
Etiquette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장소〉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

줄리조 집사 - 디모데전서 4:5 -

7살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내 삶을 불안과 분노로 가득 채웠다. 목표를 다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다. 27세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버려짐의 아픔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자살 시도 전날 기도하려고 엎드린 나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려진 7살 때부터 구했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던다” 말씀하시며 나의 아픔을 치유해 가셨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십일조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은 여전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임을 깨달았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 자녀를 두었으나 연중 13번의 제사, 혹독한 시집살이 등으로 육적, 영적 어려움을 겪었다. 내 고난을 시대 문제, 사람 문제로만 생각했고, 영적 싸움인 것은 깨닫지 못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넘어 30대 후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빈 몸으로 아이 둘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가난한 싱글맘’으로 사는 현실은 우울증과 화병, 노이로제, 극한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때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잠재우는 비결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기도 중 “공부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나의 갈 길을 물었다. 공부한 지 1년 반, 4.0 만점을 받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했고 아침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쏟고 말씀을 먹었다.

한 회사의 회계부서 직원이 되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6개월 프로젝트를 3주 만에 끝냈더니 해고되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모습을 지켜본 타 부서 책임자가 8년 간 해결 못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프로젝트를 한 달 반 만에 해결하고 전례 없는 특급 승진을 했고, 계속 실력을 인정받아 뉴욕에 있는 5~600명 규모의 한 회사에 최고 경영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영과 생명이신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배웠다.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들이 음란에 빠진 사실을 알고, 그를 음란의 길로 끌고 간 여자아이를 미워하며 아들을 보호하고 떼어놓기 위해 몸부림쳤다. 아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여자아이를 아버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순간이었다.

맘몬이 판 치고 있는 뉴욕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세상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하나님과 사탄, 두 길을 처절히 깨닫는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탄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는다. 우리 눈과 귀는 미디어와 세상 가치들로 혼탁해져 있으며 감각이 향하는 곳에 생명을 내던진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자아에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것은 혼과 육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혼을 감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육은 성전으로서 각종 음란과 중독, 세상적인 가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스스로 끊으려고 하면 나와 사탄의 싸움이 되지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이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 부딪치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는 결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영혼육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일치될 때,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한다.



온정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 사랑의 연탄 나눔”

추운 겨울나기가 너무도 힘겨운 우리네 이웃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 속에서 제대로 된 난방시설도 없이 추위와 싸워야하는 달동네 이웃들인데요. 마음까지 얼어붙는 힘겨운 겨울, 올해도 오륜교회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하려 합니다.

어려운 200가정에 전해질 총 4만 장의 연탄은,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 이웃을 위해 직접 맘을 흘림으로 혹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랑의 연탄 나눔

- 일시:** 11월 18일(토) 오전 9시
- 지역:** 상계3, 4동, 거여동, 하남시, 천호동 등
- 규모:** 연탄 약 4만장, 200가정에 200장씩 전달
- 대상자:** 1) 본교 섬김과 나눔 위원회 수혜자 중 섬김이 추천 가정
2) 각 지역 주민센터 추천가정
- 봉사자:** 100명 참여
- 문의:** 섬김과나눔위원회 총무 허수환 집사 (010-5325-2591)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러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륜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륜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